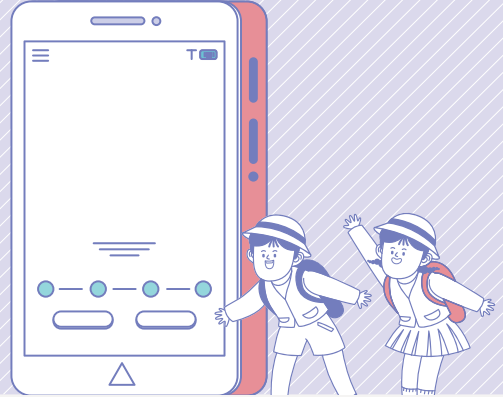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정책적 함의

이주연_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훈_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본 정책브리핑은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 영유아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문제의식의 중요성

- 최근 주변에서 유모차나 자동차에 탄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이동하는 모습이나 음식점·커피숍 등에서 스마트기기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는 TV와 스마트폰 보기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현장에서도 스마트 교육이 확대 되는 등 생활 전 영역에 미디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그 활용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
- 영유아 생활 전 영역에 미디어 노출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가 하양화 되고 있고, 이용 시간도 증가하면서 다양하고 심각한 역기능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 영유아의 약 38%가 생후 11개월 미만(0.84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경숙 외, 2015; 이정림, 2013),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 만 3 ~ 9세 연령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전 연령층 중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신체·정신적 및 뇌 발달에 특히 중요한 영유아기의 미디어 부적절 및 과다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져 신체·심리 및 사회생활의 성장 장애(시력저하, 수면장애, 난청유발, 산만함·폭력성·충동성·비사회성 증가, 팝콘 브레인, 뇌 기능장애 등)를 야기하며, 미디어 최초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유아의 미디어 건전 이용 방안과 더 나아가 과의존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한편, 영유아 미디어 이용 관련 전국 단위 통계자료 및 전라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나 기초통계 자료가 전무하여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에 근거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만 3세 이상부터이다.
- 이에 전북지역 영유아(영유아기본법,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도출된 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미디어 건전 이용 유도 방안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전북지역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실태¹⁾

미디어별 이용 빈도

- ‘TV의 경우’ 매일 시청이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시청하는 경우도 73.7%로 나타났다.
- ‘스마트기기의 경우’ ‘주 1~2회’ 28.7%, ‘매일’ 27.3%, ‘주 3~4회’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영유아 미디어 이용 빈도

구분	TV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패드)				
	월 1-2	주 1-2	주 3-4	주 5-6	매일	월 1-2	주 1-2	주 3-4	주 5-6	매일
<전체>	1.3	11.5	13.5	12.8	60.9	11.5	28.7	20.4	12.1	27.3
남아	1.1	11.2	11.7	12.8	63.3	12.1	31.5	19.4	10.3	26.7
여아	1.5	11.7	15.3	12.8	58.7	10.9	26.2	21.3	13.7	27.9

미디어별 이용 시간

- ‘TV의 경우’ 평일 총 시청 시간은 387분(6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약 70분을 주로 오후와 저녁시간대에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토, 일)에는 총 280분(4시간 40분)으로, 평일보다 2배 많은 하루 평균 140분을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기기의 경우’ 평일 총 이용 시간은 219.9분(3시간 40분)으로, 하루 평균 약 40분 동안 스마트기기를 주로 저녁(64.1%)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 총 이용시간은 186.9분(3시간)으로,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90분을 주로 오후(57.8%) 시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전북지역 영·유아(0~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2〉 영유아 미디어 평일과 주말 이용시간대 및 이용시간

구분	평일(월~금)					주말(토, 일)				
	이용 시간대					이용 시간대				
	오전	오후	저녁	밤	총 시간	오전	오후	저녁	밤	총 시간
TV	8.7%	30.2%	58.3%	2.8%	387분	39.5%	43.4%	15.8%	1.3%	280분
스마트기기	2.0%	26.6%	64.1%	7.3%	219.9분	15.3%	57.8%	23.3%	3.6%	186.9분

미디어별 최초 이용 시기

- TV의 경우 18개월부터, 컴퓨터의 경우 37.9개월부터, 스마트기기의 경우 25.4개월부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유아 미디어별 최초 이용 시기

구분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체>	1개월	60개월	18.0개월	5개월	96개월	37.9개월	1개월	72개월	25.40개월
영아	5개월	30개월	14.7개월	12개월	27개월	21.9개월	5개월	36개월	18.77개월
유아	1개월	60개월	18.9개월	5개월	96개월	39.7개월	1개월	72개월	26.83개월

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 TV의 경우, 모 63.4%, 부 13.8%,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각각 10.2%로 나타나 부모가 77.2%를 차지했다.
- 스마트 기기의 경우, 모 57.2%, 부 23.3%, 형제자매 11.8% 순으로 나타나 부모가 80.5%를 차지했다.

〈표 4〉 영유아 자녀 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구분	부	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	스스로	기타
TV	13.8%	63.4%	10.2%	10.2%	0.5%	1.6%	
스마트기기	23.3%	57.2%	4.0%	11.8%	0.9%	1.7%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유·무

- ‘TV의 경우’ 가정 내 이용규칙 있음 80.8%, 이용규칙 없음 19.2%로 나타남. ‘스마트기기의 경우’ 이용규칙 있음 89.4%, 이용규칙 없음 10.6%로 나타났다.
- ‘TV 시청 지도’ 정도는 66.3%가 ‘연령·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하는 반면, 약 33.7%는 소극적인 시청 지도를 나타냈다.

〈표 5〉 영유아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

없음	TV 이용 시 가정 내 규칙 유·무				없음	스마트기기 이용 시 가정 내 규칙 유·무			
	있음					있음			
	계	시간제한	콘텐츠 제한	시간+콘텐츠 제한		계	시간제한	콘텐츠 제한	시간+콘텐츠 제한
19.2	80.8	23.6	13.8	43.4	10.6	89.4	25.5	8.6	55.3

<표 6> 영유아 자녀 TV 시청 지도 정도

	소극적 시청 지도				(계)	연령·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만 시청
	프로그램등급제 모를	연령·등급 상관없이 모두 보여줌	폭력/선정적 장면만 못 보게 함	만화는 연령·등급 상관없음		
<전체>	1.8	2.3	20.6	8.9	33.7	66.3
남아	1.6	3.2	25.8	11.6	42.1	57.9
여아	2.1	1.6	15.5	6.2	25.4	74.6

스마트기기 주 이용 상황 및 이용 시 부모의 행동

- 스마트기기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황은 ‘부모가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자녀 달래기’순임. 이는 스마트기가 자녀 돌봄의 양육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이 약 62%를 차지했다.
-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50.4%는 ‘집안일 등의 가사일’을 했고, ‘부모 휴식’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와 함께 스마트기기 이용’하는 경우는 단 14.4%였다.

<표 7>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기기 주이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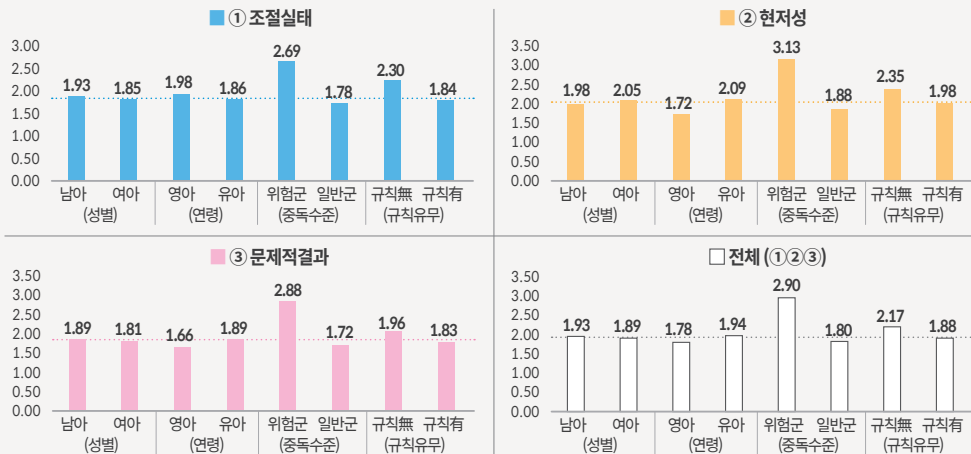
학습/교육	부모의 용무	식사 중	자녀 달래기	이동 중	취침 전	기타
10.0%	38.7%	13.2%	23.2%	7.7%	2.6%	4.6%

<표 8> 스마트기기 이용 시 부모의 행동

자녀와 함께 이용함	부모의 불일을 봄				
	계	가사	휴식	식사/대화 등	업무
14.4%	85.6%	54.0%	14.2%	13.0%	4.3%

최근 3개월간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²⁾ 수준

- 설문에 응답한 영유아의 과의존 수준은 4점 기준 1.91점, 총합 36점 기준 17.21 점이었으며, 400명 중 36명(남 20명, 여 16명) 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2) 과의존 척도의 문항은 3항목(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결과), 9문항 4점 척도로 구성, 24점 이상은 위험군 해당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운 점

-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부모가 바빠서 자녀를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려움

이용 지도 방법을 몰라서	이용 시간 제한하기	부모의 일이 바빠서	적절 콘텐츠 선별	연령별 적정 이용시간 모름
15.4%	35.5%	24.1%	14.5%	10.5%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시키는 방법

- ‘자녀 연령대별 체험활동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조절능력 향상,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감소를 위한 방법

교육/상담	자녀의 조절능력 향상	부모의 관리감독 능력	가족/교사 등의 도움	연령대별 체험활동 확대	사용조절 프로그램개발
3.0%	19.1%	15.9%	2.5%	55.4%	4.0%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건전 이용 유도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함. ‘부모의 승인 강화프로그램’과 ‘이용 지침서 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건전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방안

지도지침서 제공	부모교육 실시	부모의 승인 강화프로그램	과다사용에 대한 상담/치료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	유해 앱 차단 프로그램
17.2%	29.2%	20.3%	11.0%	13.6%	7.9%

3. 전북지역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대한 주요 현안

미디어 최초 노출시기와 이용 연령의 하향화

- 조사 결과, 미디어 최초 노출 시기는 TV의 경우 18개월, 컴퓨터의 경우 37.9개월, 스마트기기의 경우 25.4개월로 만 3세 이전에 노출되고 있었다.

영유아기 미디어 노출 및 과다 이용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저조

- 대부분의 부모들은 미디어 조기 노출과 장시간 이용 시 영유아에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했으며, “다른 아이들도 다 보니까”라는 생각과 일상생활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마트폰 육아: 미디어를 양육도구로 사용

- 스마트기기 첫 노출 계기는 ‘자녀 달래기 위해서’, 영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주로 이용하는 상황은 ‘부모의 용무(가사일, 업무, 휴식 등)를 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음. 사실상의 양육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부모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역량 부재

- 영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 이용 습관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 초기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함. 반면, 부모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재했고, 그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400명의 부모 중 단 11%(42명)만이 미디어 관련 부모교육을 받았음)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인프라·정책적·제도적 기반 취약

- 현재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어디에서도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상담·치료 등의 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기관·중간지원조직(담당 센터) 등이 부재한 상황. 무엇보다 전북지역은 미디어 과의존 성향이 있는 영유아 대상 민간 및 공공의 전문 상담과 치료 기관,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정책은 부처별(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복지부 등)로 각기 흩어져 있고,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어려워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대응 관련 청소년 대상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 대상 미디어 적절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법률과 전북도 차원의 조례는 부재하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종합계획(제4차, 2019~2021)」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영유아 미디어(인터넷 및 스마트폰 포함) 건전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한 기초 실태조사도 미진한 상황이다.

4.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① 영유아 미디어 조기노출과 과다 이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 제고 노력 필요

- **(영유아의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장을 위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 필요)** 적절한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천 운동, 유해사이트 감시 및 신고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영유아 대상 뮤지컬과 연극, 창작동화구연 및 포털사이트와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병행이 필요하다.
- **(영유아 미디어 관련 정기 포럼 운영)** 영유아 유관기관(어린이집·유치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청, 행정, 스마트쉼센터, 학계 전문가 및 상담·치료사·의사 등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문화 조성 및 과의존 대응에 대한 정책 아젠다 발굴, 지역사회와의 관심 제고를 위해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

② 영유아 보호자(부모, 조부모 등) 대상 교육 참여 제고와 지도역량 강화

- **(부모교육 참여 제고)**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모의 참여를 위해 주말과 저녁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 연령별, 기본·심화 등 단계별 교육과정과 실천 및 상담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 **(미디어 이용 시간관리 및 유해정보 차단 앱·프로그램 정보 안내)** 안전한 미디어 사용 환경과 관련하여 유해정보 차단 앱과 프로그램 안내 및 적정 이용을 위한 시간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필요하다.

- **(영유아기 보호자 대상 정보제공 채널 다각화)**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정보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전달하여 가정에서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 앱(디지털 육아 잡지 등) 제작, 임신육아종합포털(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등
 - 오프라인: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작은)도서관, 놀이터, 키즈카페, 육아용품 매장 등

③ 영유아 및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 등) 대상 과의존예방교육 체계화·내실화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예방교육 의무 횟수 및 이행 점검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대상 「미디어 예방 의무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회 중 1회 이상은 스마트십센터의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파견되어져 실시하고, 교육 이행에 대한 결과 검토도 강화해야 한다.(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해 20~30명 수준의 교육 인원 유지, 연령별 교육수준 고려, 현장 연계 교육, 인형극 형태의 예방교육 등 영유아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 **(영유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 보수교육, 교사양성과정 내에서 영유아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 및 과의존 대응 교육이 필요함.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보수과정 내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④ 스마트십센터 영유아 특화 기능 확대 및 강화 필요

- **(영유아 전담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스마트십센터'가 영유아 대상 미디어 올바른 이용 및 과의존 예방과 대응 관련 지원 정책, 교육, 사업, 상담 등을 전담하여 관련 유관부서와 협력 지원을 통해 통합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유아 유관시설 내 영유아 대상 전담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대상 예방교육을 3년 이상 지속한자, 영유아 관련 전공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선별하여 영유아 전담 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이 필요하다.
- **(놀이치료 예산과 인력 확대 및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 편성 조정)** 전북에는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 대상 전문 상담·치료 기관(병원)이 부족함. 이에 전북스마트십센터의 놀이치료의 운영 예산과 인력 확대 및 놀이치료실 운영 시간대를 주말과 평일 야간 등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 **(관련 행정 부서 및 영유아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협의회) 구성·운영)** 영유아 대상 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부서간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과 스마트십센터에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관련 협업 매뉴얼(신청 및 연계방법 등을 제공) 제시 등 스마트십센터와 행정 주관부서 및 영유아 유관기관간의 협력 연계가 필요하다.
-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 구축·운영)** 전북 스마트십센터를 통한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영유아 특화 미디어 과의존 대응체계 구축 · 운영>

- ① 지역사회 내 영유아 대상 과의존 안전망 강화 (잠재적 과의존군 조기 선별)
- ② 조기 선별된 영유아와 부모 대상 가정방문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 ③ 과의존위험군 영유아와 부모 대상 센터 내방 놀이치료,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교육
- ④ 미디어기기 과의존 이외 공존 질환을 보유한 영유아 대상 영유아와 부모 심리 종합검사 지원, 전문적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연계, 치료비 지원 등

⑤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 조성 필요

- **(영유아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대응 관련 법적 제도 정비)** 체계적인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영유아 대상을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거나 혹은 광주광역시(동구)와 같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내용으로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행정적 지원방안,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영유아 유관기관과 행정부처 및 민간단체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미디어 이용을 대신할 대체 놀이 문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영유아 특화 ‘인터넷 윤리 체험관’ 운영)** 스마트심센터는 주말/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평일 저녁 6시에 운영이 종료된다는 제한점이 있어, 폭넓게 이용시간이 가능한 체험관 운영이 필요함. ‘전라북도창의체험관’ 공간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와 부모 특화 미디어 윤리 체험관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 체험관 4곳(경기성남 분당 한국잡월드, 국립부산과학원, 국립광주과학원, 대전국립중앙과학과)을 운영중이다.

<국립부산과학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분당 잡월드>



자료 : 당신이 놓치고 있는 사이버 윤리 이야기(한국정보화진흥원 고민석)

<참고문헌>

- 강은영(2014), 경기도민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성자(2017), 2018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게임중독, SNS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꿈키움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 관계부처 합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19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 국회(2018), 영유아 디지털 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 박선숙 의원실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동일 외(2013),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김여라(2019),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과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019.5.15.일자 보도자료.
-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4), 영유아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창호·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김기현(2017),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여진·고승한·문순덕·이형초·조정문(2016),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대응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201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